

취업·교육 등 ‘7개 거점별’ 공간 젊은층에 필요한 사업 직접 제안



지자체부문 [청년정책] 광명시청 - 청년들이 직접 만드는 ‘광명시 청년동’

광명시 인구 5명 중 1명꼴이 청년이지만, 매년 광명시 청년은 줄어드는 추세다. 이대로라면 5년마다 약 5천700명씩 청년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에 지난 2019년 청년실태조사를 해보니 주거, 문화, 일자리, 건강 등 분야를 막론하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인원 50명, 기초단체로서는 최대 규모로 청년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이 때문이다.

위원회는 곧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됐고, 논의된 정책은 시정에 반영됐다. 청년취업·창업·교육·문화·예술·교류·커리어·건강·동아리·여가활동 등 7개 거점별 청년 특성과 공간인 ‘청년동’을 조성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직접

숙의예산으로 12개사업 50억 반영
커뮤니티 활동 43개팀 230명 지원
청년주택·일자리창출 행보도 나서

제안하고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청년숙의예산으로 12개 사업에 대한 50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기도 했다.

또 3인 이상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생각팔참사업을 통해서도 43개 팀 230명을 지원했다. 팀당 최대 300만원을 광명시로부터 제공받았다. 주거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2025년까지 내부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소하동 주차장 부지, 광명시흥테크노밸리주

차단지에 청년주택 1천210가구를 마련키로 했다. 또 하안2지구와 구름산지구에도 추가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관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보에도 적극 나섰다. 4만5천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인데 1년 전 개원한 한국폴리텍대학교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청년 인력 양성 및 취업 교육을 추진해온 게 대표적이다.

청년들이 직접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선택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이 호평으로 이어졌다. 이는 광명시가 ‘청년 도시’로서의 위상을 보다 굳건히 다지는 토대가 됐다.

임진왜란 의병장 조헌 필체 담아 김포만의 고유 글꼴 자궁심 고취



지자체부문 [도시브랜드] 김포시청 - 김포시 전용서체 ‘김포평화체’

한동안 각 기초단체에서 전용서체 ‘봄’이 일었다. 경기도는 ‘경기’라는 명칭이 만들어진 지 1천년이 되는 해인 2018년에 앞서 2017년 ‘경기천년체’를 만들어 보급했다. 양평군은 ‘양평군체’, 포천시는 ‘포천막걸리체’와 ‘포천오성과학한글체’, 고양시는 ‘고양체’와 ‘고양터양체’, ‘고양일산체’를, 남양주시는 ‘남양주고딕’, ‘남양주다산’을 각각 제작했다.

2019년 전용서체 ‘김포평화체’를 개발한 김포시는 후발주자이지만 김포평화체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김포 출생으로,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인 중봉 조헌의 필체가 김포평화체에 담겨 있어서다. 조헌이 남긴 문집을 살펴보면 끝을 두껍게 맺은 획이 글자의 형태를 선명하고 정

획은 ‘도톰’ 세리프 형태는 단순화
누구나 사용 가능 한컴 기본 탑재
공문서·홈페이지·현수막 등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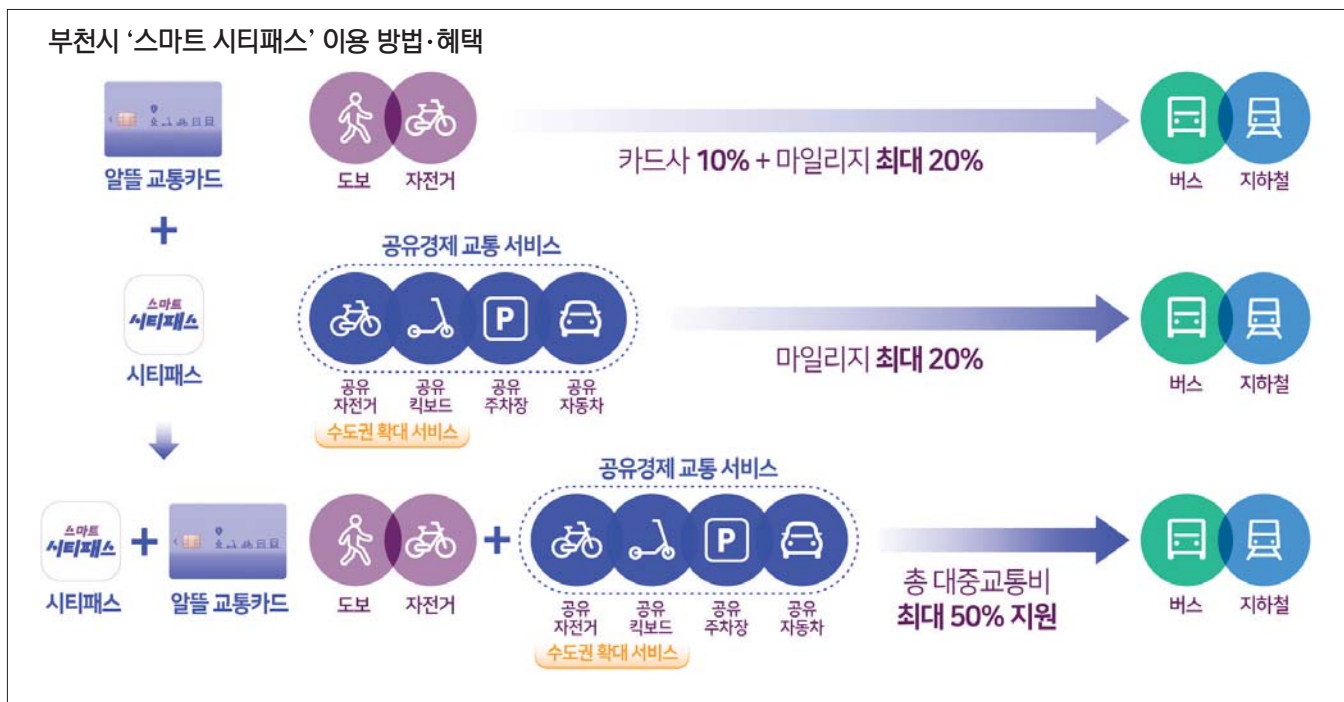
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재해석해 획은 도톰하게 끝맺고 세리프(로마자 활자에서 획의 시작이나 끝부분에 있는 작은 돌출선) 형태는 단순화해 서체를 만들었다. 가독성이 높은 게 특징이다.

김포시가 가진 지형·역사·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인류 화합을 위해 평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도시 김포의 상징성과 미래상을 형상화했다. 김포시만의 고유 글

꼴을 갖게 된 점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게 김포시 측 설명이다. 현재 ‘김포평화체’를 시 홈페이지에서 무료 배포하고 있는데 용도 구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한컴오피스 기본 서체로 탑재돼 활용이 증가했다.

김포시에서도 김포평화체를 공문서, 홈페이지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공사현장에서의 비산먼지·소음 등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적용케 했다. 공공현수막에도 평화체를 사용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김포시가 한반도 평화를 선도하는 도시라는 점을 알리는데 전용서체가 역할을 했다.

앱 연계 ‘공유 모빌리티’ 활용 이동 대중교통 비용 최대 50%까지 절감



지자체부문 [스마트혁신] 부천시청 -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 ‘스마트 시티패스 앱’

경기도민에게 빠르고 편리한 이동은 최대 숙원이다.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해도 거주지에서 버스 정거장, 지하철·가차역까지 가는 거리가 상당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환승 주차장이 조성된 것도 거주지에서 가차역 등까지 자차를 이용해 이동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인데 주차 비용 부담이 결코 적지 않다.

부천시의 ‘스마트 시티패스’ 앱은 이런 고민에 대한 결과물이다. ‘스마트 시티 패스’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및 다수의 기업들과 협력해 이 앱을 구축했다. 부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대중교통과 공유 모빌리티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국토부·기업들과 협력해 만들어
수도권 전역서 동일한 혜택 누리
교통혼잡 완화·데이터 정책 활용

도록 한 게 핵심이다. 목적지까지 온전하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서비스’를 표방했다.

앱과 연계된 공유 전동 킥보드(킥고잉)나 전기자전거(엘리클), 차량(위굴리, 주차장은 모두의주차장)을 이용해 버스 정거장, 지하철·가차역까지 이동하면 대중교통 요금의 최대 2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게 핵심이다. 알뜰교통카드(또는 캐시비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해

전국 첫 수요자 참여형 품종 개발 해들·알찬미 보급확대 체계 구축



지자체부문 [농업정책] 이천시청-임금님표 이찬미 품종개발 사업 벼 품종 국산화를 통한 종자 독립

이천은 자타가 공인하는 쌀의 고장이자다. 이천 쌀로 만든 밥은 조선시대 임금의 수라상에 올랐던 것으로도 유명인데, 이천의 쌀 브랜드인 ‘임금님표 이천 쌀’은 여기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현재 국내 쌀 대부분은 고시카리, 추청 등 외래 품종이다. 이천 쌀도 마찬가지다. ‘임금님표’를 앞세우지만, 정작 조선시대 임금의 수라상에 올랐던 쌀밥의 맛은 지금 느낄 수 없는 것이다. 이천시장이 공약으로 이천 고유의 쌀을 찾겠다고 내건 이유다.

이천지역에 적합한 국산 벼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에 이천시와 농촌진흥청, 농협이 협업했다. 몇 가지 품종을 개발한 이후에도 보안을 위한 노력이 이

종자채취 밭 직접 운영·면적 늘려
기술보급 대상에 정부보급금 선정
외래종 지배 국내 시장 ‘독립의 길’

어졌는데 농민들은 기르기에 적합한 벼 품종을 선발했고 소비자들은 쌀의 맛을 봤다. 그 결과 2018년 해들, 2019년 알찬미가 탄생했다. 이름은 지역주민들이 붙였다. 전국 최초로 ‘수요자 참여형 벼 품종 개발사업’을 통해 제1호 고유 품종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천시는 해들, 알찬미의 보급 확대를 위해 자체 종자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주력했다. 원종포·채종포 등 종자

를 채취하기 위한 밭을 직접 운영하는가 하면, 재배 면적도 점차 확대해나갔다. 2019년에는 해들·알찬미의 재배 면적이 131ha였는데 지난해에는 1천972ha로 15배가 늘어났다. 올해는 3천700ha로 2배 가까이 늘었고, 내년에는 6천500ha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탄생한 이천 고유의 쌀은 지난해 식량작물분야 농업기술보급사업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한편, 홍콩으로 시범 수출도 이뤄졌다. 2023년 정부 보급종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냈다. 무엇보다 외래 품종이 지배했던 국내 쌀 시장에 ‘독립의 길’을 열었다는 게 쾌거다. 이천이 진정한 쌀의 고장으로 거듭나는 바탕이 됐다.